

이 보도자료는 2021. 9. 1.(수) 11: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성국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1. 9. 1.(수)

제 목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

- **금일(2021. 9.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 출범식이 개최되었음 * 현판식 개요 및 참석자 명단, 추진경과 : 별첨 참조
-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과 금융·증권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6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됨
-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임
-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 및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통제, 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한 것임

1

출범 배경

-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세계 10위('21. 8.말 기준 2,712조 원 상당)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증권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금융당국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을 출범하게 되었음

2

구성 및 운영 방식

① 인적 구성

-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총 46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우수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임

* '13. 증권범죄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총 47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20. 1. 종료 당시 인원(총 29명)보다 확대된 규모임

《수사협력단 인적 구성》

구분 \ 구성	인원(명)	세부구성
검사*	5	단장 1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검찰직원	29	수사과장(서기관, 부단장) 1명, 수사팀장 6명(사무관 4명, 6급 2명), 6~8급 수사관 17명, 실무관 5명
유관기관 직원	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 12명중 3명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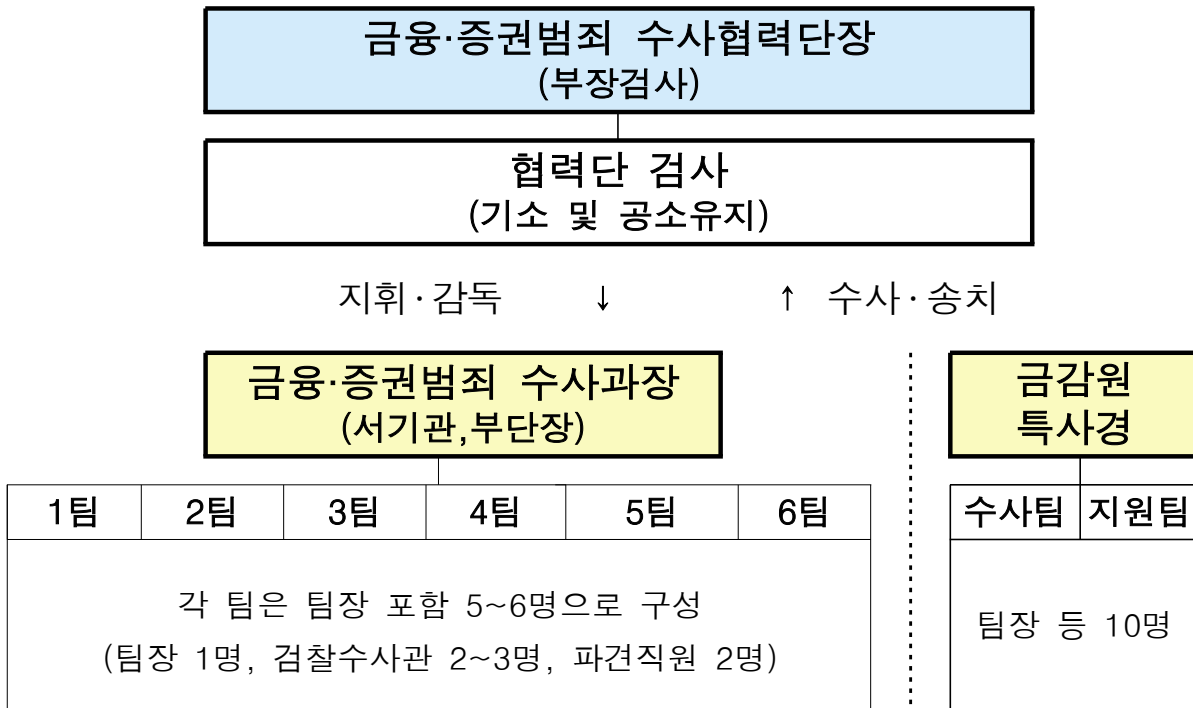
* 박성훈 단장(사연 31기)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12.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14.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였고,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임

- * **협력단 검사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또는 남부지검 금조1·2부 수석검사를 역임하거나 금조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전원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 **수사과장 및 수사팀장**은 전원 증권범죄합수단, 금조부, 중앙지검 특수부 등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이며, 검찰수사관 중 절반 이상이 증권범죄합수단 또는 금조부 수사 경력을 보유. 그 외에도 공인전문수사관, 회계분석 전문가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경력자 등으로 구성
- * **외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역시 금융·증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있음

② 조직 및 운영방식

-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내에 금융·증권범죄 수사과 설치
- 수사는 수사과 소속 수사팀(검찰수사관 및 특사경)이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지휘,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 협력단 검사는 협력단 내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수사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10명)도 지휘,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중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도 담당
-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는 6개 수사팀으로 구성
 -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 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 계장
 - 각 수사팀은 팀장 포함 5~6명으로 구성(팀장 1명, 검찰수사관 2~3명, 파견직원 2명)

● 조직도



-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되어 자료 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

소속기관 \ 업무	역할 상세
금융위원회	기업분석, 거래자료 분석, 사건조사(특사경의 경우)
금융감독원	기업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사건조사(특사경의 경우)
국세청	자금추적 및 포탈세금 추징
한국거래소	증권거래내역 분석, 심리분석의뢰
예금보험공사	기업분석,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환수

3

의의 및 기대효과

-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 강화
 - 검찰의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총 46명 규모로, 최초 증권범죄합수단 규모(총 47명)와 비슷하며, 종료 당시 규모(총 29명)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금조1·2부와 더불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되었음
- 검사와 수사팀의 역할분담과 검사의 사법통제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임
 -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 및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통제, 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한 것임
- 금융·증권수사 전문가 그룹 육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장기근속, 특별승진,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협력단 소속 수사관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장기적으로 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 양성

☞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실체적 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절차적 정의 담보를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별첨] 현판식 개요 및 참석자 명단, 추진경과

□ 일시 · 장소

- 2021. 9. 1.(수) 11:30,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

□ 참석대상

- 대검찰청
 - 김오수 검찰총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심재철 남부지검장, 박승대 제2차장검사, 박성훈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장 및 협력단원 등
- 유관기관 대표

소속기관	참석자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금융감독원	김도인 부원장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한국거래소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예금보험공사	박연서 이사

□ 추진 경과

- '21. 7. 2.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장 부임 및 '준비팀' 운영
- '21. 7. 20. 금융·증권범죄 수사과장 공모
- '21. 7. 20.~22. 수사관 공모(수사팀장 포함)
- '21. 8. 9. 수사과장, 수사팀장(사무관급) 부임
- '21. 8. 17. 6~8급 수사관 부임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합류
- '21. 9. 1. 공식 출범(현판식 개최) ☑